

##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이준배<sup>1),2)</sup> 허유진<sup>1)</sup> 조병철<sup>1)</sup> 박선웅<sup>1)\*</sup>

<sup>1)</sup>고려대학교 <sup>2)</sup>가톨릭관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이라는 변인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세밀하게 검증하였다. 참여자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18명을 모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단순상관 분석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밀관성)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 정적 상관관계,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 반대의 관계를 나타냈다. 매개분석 결과,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은 확고한 정체성을 통해 높은 정신적 웰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어졌고, 거부와 비밀관성은 정체성 결여를 통해 낮은 웰빙과 높은 부적응으로 이어졌다. 추가로, 거부와 비밀관성은 교란된 정체성을 통해 높은 부적응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양육태도를 밝힘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 간의 복잡한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정체성 형성의 발달과업을 고려할 때, 자율성을 지지하고 구조를 제공해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심리적 웰빙, 청소년기,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mailto:sunwpark@korea.ac.kr)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자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 문제는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인 동시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이다. 대학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가면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이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Erikson(1968)은 자신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정체성 형성을 청소년기에 이뤄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체성 형성이 발달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정체성 발달은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윤가영 등, 2022; Park & Moon, 2022; Samaey et al., 2023; Schwartz et al., 2015).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지만 가족,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의미 있는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고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체성 형성에 참여하는 ‘정체성 대리인’(identity agents; Schachter & Ventura, 2008, 449쪽)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의 정체성 발달에 초점을 맞춰 부모의 어떤 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거쳐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심리학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80년 넘게 이루어져 왔고,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Power, 2013). 비록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은 크게 따뜻함-거

부, 자율성지지-강요, 구조제공-비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는 이 세 축이 양극적(bipolar)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Baumrind, 1971; Schaefer, 1965). 하지만 어떤 양육태도가 낮다는 것이 곧 반대되는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부모라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 모두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여섯 가지 양육태도를 단극적(unipolar) 차원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다(Skinner et al.,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다. 지금까지 나온 메타분석 결과만 살펴보다라도,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Pinquart & Gerke, 2019), 웰빙(Crandell et al., 2018), 자아탄력성(진다정, 이승연, 2019), 우울(Liu & Merritt, 2018), 사회적 불안(Dong et al., 2024) 등과 관련이 있었다. 그중 Skinner 등(2005)이 제시한 여섯 가지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따뜻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Costa et al., 2019). 캐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경계선적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Armour et al., 2022). 구체적으로, 강요는 충동성 및 과잉각성과, 거부는 관계적 불안정성과, 비일관성은 감정 조절장애 및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는 다시 행복감으로 이어졌다(안지

영 등, 2021).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정적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졌다(유연주, 전주성, 2021). 그리고 임효진과 이소라(2022)의 중단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릇과 자존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최근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신건강을 단일 요인이 아닌 2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진영 등, 2020; Keyes, 2005, 2007). 전통적인 단일 요인 모델에서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 질환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에 반해, 2요인 모델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 역시 고려한다.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는 중학생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병리와 주관적 안녕감의 2요인으로 구분하여 학교참여 및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도 하였고(이승연, 한미리, 2014), 2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긍정 심리특성의 발달 정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이승연, 안소현, 2018). 또한, 송중환 등(2023)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으로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을 검증하여 자살사고와 정서적 웰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의 정신건강 척도가 타당화되었는데(김진영 등, 2020),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다.

### 정체성과 정신건강

정체성은 자신의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주는 가치나 목표, 믿음 등에 기초하여 명확

하게 기술된 자기규정을 가리킨다(문현 등, 2022; 윤가영 등, 2022; Waterman, 1984).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체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서 정체성 발달이 잘 이뤄진 참여자들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 웰빙, 자존감을 보였다(Schwartz et al., 2011).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araş와 동료들(2015)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정체성 형성은 삶의 만족 및 심리적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정체성 혼란은 정반대의 관계에 있었다. 또한, Hardy 등(2013)의 연구에서 정체성 형성은 자존감 및 삶의 의미와 정적 관련이 있고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체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에 따르면(Hatano et al., 2022), 높은 수준의 통합된 정체성은 높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 반면, 높은 정체성 혼란은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졌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정체성 형성이 정신적 웰빙과는 정적,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윤가영 등, 2022; Park & Moon, 2022).

한편, 정체성의 측정은 과거에는 자신에 대한 탐색(exploration) 여부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전념(commitment) 여부를 통해 정체성 지위를 범주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Marcia, 1966). 하지만 최근에는 범주적 측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탐색과 전념이 세부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정체성 발달 과정의 여러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예,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 Luyckx et al., 2008; Park et al., 2023). 그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Kaufman et al., 2015)는 정체성 발달을 세 차원으로 측정하는데, 정체성의 순차적인 발달 과정보다는 현시점에서의 정체성 발달 상태를 측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고한 정체성 (consolidated identity)은 높은 수준의 자기연속성을 경험하고 통합성과 전인성을 느끼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약간의 이해는 있으나 확고하지 못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확고한 정체성은 정신적 웰빙과는 정적, 심리적 부적응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정신적 웰빙과는 부적, 심리적 부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박선웅 등, 2023; Bogaerts et al., 2021, 2023a). 나아가 여러 종단연구에서 정체성 발달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Bogaerts et al., 2023b; De Lise et al., 2024; Raemen et al., 2022), 글쓰기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을 경우 정신건강과 부적 관계에 있는 물질주의 수준이 낮아지기도 하였다(박선웅, 박예린, 2019; 조하정 등, 2021).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형성이 정신건강에 인과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발달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 외에도 성취동기(박선영, 홍세희, 2013), 학업성취(김성경 등, 2017), 진로태도성숙(강원덕, 2015), 대인관계(윤혜영, 강지현, 2015) 등 자녀가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정체성 형성은 아직 부모로부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청소년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한 종단 연구 결과, 통제 혹은 강요가 심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초기 성인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Luyckx et al., 2007). 성취지향적인 부모양육태도 혹은 학대나 방임은 자녀의 정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박가화, 이지민, 2014; 채미경, 김현숙, 2018; Ingoglia et al., 2017). 부모의 과잉간섭은 대학생 자녀의 정체성 탐색과 전념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Hoyle & Sherill, 2006), 청소년 자녀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높은 우울 경험 및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의빈, 김진원, 2023). 부모의 높은 자율성지지와 낮은 심리적 통제는 정체성 통합과 연관되었고 이러한 연관성은 낮은 수준의 우울 증상과 불안으로 이어졌다(Zong et al., 2019).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최임숙, 윤석환, 2016). 또한 부모의 애정과 보호, 합리적 설명도 정체성 형성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박희숙, 박재연, 2020; 장희순, 2020).

앞서 소개한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양

육태도가 자녀의 정체성 발달 및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고, 정체성 발달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깊다. 정체성 발달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핵심적인 발달과업임을 고려할 때 정체성 발달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이의빈, 김진원, 2021, 2023; 채미경, 김현숙, 2018). 그중 윤가영 등(2022)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사이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압력은 부모가 높은 학업적 성취를 양육의 최우선적 목표로 여겨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학업 활동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양육태도로 측정되었다. 정체성 발달의 측정에는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Luyckx et al., 2008; Park et al., 2023)와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박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웰빙과 부적, 우울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는 총 8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체성 결여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 결과 웰빙은 낮고 우울은 높다는 것이다.

윤가영 등(2022)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부모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낮은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다는 것이 곧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즉 부모 양육태도를 단극성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Skinner 등(2005)의 입장을 지지한다. 나아가 이 결과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어떤 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매개로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세 변인을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18명(여성 114명)을 모집하였다. 참여는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졌고,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각자 편리한 시간에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여에 앞서 참여자들은 연구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개인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 측정 도구

####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어 번역본은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요인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alpha$ )는 아래 표기하였고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하위요인으로는 따뜻함( $\alpha = .93$ ; 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신다”), 자율성 지지( $\alpha = .92$ ; 예,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구조제공( $\alpha = .81$ ; 예,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이 있고,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거부( $\alpha = .80$ ; 예,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강요( $\alpha = .73$ ; 예,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러라 하신다”), 비밀관성( $\alpha = .80$ ; 예,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 정체성 발달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개의 하위요인이 있는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래 27 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박선웅 등(2023)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12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다”(확고한 정체성;  $\alpha = .71$ ),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교란된 정체성;  $\alpha = .70$ ),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것 같다”(정체성 결여;  $\alpha = .81$ )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

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정신건강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은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김진영 등(2020)이 Keyes(2005, 2007)의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 및 평가 척도와 임영진 등(2012)의 한국판 성인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정신적 웰빙 요인( $\alpha = .95$ )의 예시 문항으로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고 느꼈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 6점 척도(1 = 전혀 없음; 6 = 매일)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적응( $\alpha = .85$ )의 예시 문항으로는 “자주 슬퍼진다”와 “자주 긴장하고 불안해진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기보고식 척도의 자료들은 JASP (Version 0.17.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 간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참여자의 정신적 웰빙 및 심리적 부적응 사이에서 각 정체성 발달 차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부모양육태도

의 하위요인이 정체성 발달의 세 가지 차원에 각각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JASP의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 모듈을 이용하여 부모양육태도의 6개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의 3개 하위요인을 매개변인으로 각각 3번 입력하고, 정신적 웰빙과 부적응 2개를 각각 결과변인으로 입력하여 총 6번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번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의 계수가 95% 신뢰구간에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값 .05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보고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 결 과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기술통계 및 단순 상관 결과

연구에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b>부모양육태도</b>											
1. 따스함	-										
2. 자율성지지	.80***	-									
3. 구조제공	.36***	.39***	-								
4. 거부	-.51***	-.53***	-.24***	-							
5. 강요	-.32***	-.44***	.06	.42***	-						
6. 비밀관성	-.48***	-.55***	-.26***	.44***	.64***	-					
<b>자기개념과 정체성</b>											
7. 확고한 정체성	.43***	.45***	.31***	-.26***	-.15*	-.18**	-				
8. 교란된 정체성	-.22**	-.33***	-.18**	.34***	.39***	.43***	-.28***	-			
9. 정체성 결여	-.36***	-.42***	-.18**	.39***	.40***	.48***	-.42***	.72***	-		
<b>정신건강</b>											
10. 웰빙	.51***	.55***	.24***	-.26***	-.20**	-.38***	.55***	-.26***	-.47***	-	
11. 부적응	-.20**	-.24***	-.15*	.31***	.34***	.43***	-.37***	.52***	.62***	-.43***	-
<b>성별(남=1, 여=2)</b>											
평균	4.11	3.99	3.50	2.02	2.51	2.48	3.59	2.69	2.69	3.85	2.38
표준편차	0.77	0.82	0.79	0.81	0.75	0.82	0.67	0.81	0.92	1.09	0.7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예측변인(부모양육태도)과 결과변인(웰빙, 부적응) 간 정체성의 간접효과 결과

모델	간접효과		<i>b</i>	<i>SE</i>	95% CI	
1	따스함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10	0.06	[-0.02, 0.23]
	<b>자율성지지</b>	→ <b>확고한 정체성</b>	→ <b>웰빙</b>	<b>0.15</b>	<b>0.06</b>	<b>[0.03, 0.30]</b>
	<b>구조제공</b>	→ <b>확고한 정체성</b>	→ <b>웰빙</b>	<b>0.09</b>	<b>0.04</b>	<b>[0.02, 0.20]</b>
	거부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2	0.04	[-0.11, 0.08]
	강요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2	0.05	[-0.17, 0.08]
	비일관성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7	0.05	[-0.02, 0.21]
2	따스함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3	0.02	[-0.10, 0.00]
	자율성지지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2	0.02	[-0.01, 0.11]
	구조제공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1	0.01	[-0.01, 0.06]
	거부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2	0.02	[-0.08, 0.00]
	강요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2	0.02	[-0.09, 0.00]
	비일관성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4	0.02	[-0.11, 0.00]
3	따스함	→ 정체성 결여	→ 웰빙	0.01	0.04	[-0.08, 0.09]
	자율성지지	→ 정체성 결여	→ 웰빙	0.05	0.05	[-0.03, 0.17]
	구조제공	→ 정체성 결여	→ 웰빙	0.01	0.03	[-0.05, 0.07]
	<b>거부</b>	→ <b>정체성 결여</b>	→ <b>웰빙</b>	<b>-0.06</b>	<b>0.03</b>	<b>[-0.14, -0.01]</b>
	강요	→ 정체성 결여	→ 웰빙	-0.05	0.04	[-0.16, 0.03]
	<b>비일관성</b>	→ <b>정체성 결여</b>	→ <b>웰빙</b>	<b>-0.11</b>	<b>0.04</b>	<b>[-0.23, -0.04]</b>
4	따스함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6	0.04	[-0.15, 0.02]
	<b>자율성지지</b>	→ <b>확고한 정체성</b>	→ <b>부적응</b>	<b>-0.10</b>	<b>0.04</b>	<b>[-0.22, -0.02]</b>
	<b>구조제공</b>	→ <b>확고한 정체성</b>	→ <b>부적응</b>	<b>-0.06</b>	<b>0.03</b>	<b>[-0.13, -0.01]</b>
	거부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1	0.03	[-0.06, 0.07]
	강요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1	0.03	[-0.06, 0.11]
	비일관성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5	0.03	[-0.13, 0.02]
5	따스함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7	0.04	[-0.00, 0.16]
	자율성지지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6	0.04	[-0.16, 0.03]
	구조제공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3	0.03	[-0.09, 0.02]
	<b>거부</b>	→ <b>교란된 정체성</b>	→ <b>부적응</b>	<b>0.06</b>	<b>0.03</b>	<b>[0.01, 0.13]</b>
	강요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6	0.03	[-0.00, 0.14]
	<b>비일관성</b>	→ <b>교란된 정체성</b>	→ <b>부적응</b>	<b>0.09</b>	<b>0.04</b>	<b>[0.03, 0.18]</b>
6	따스함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1	0.05	[-0.12, 0.09]
	자율성지지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6	0.05	[-0.20, 0.05]
	구조제공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1	0.03	[-0.08, 0.07]
	<b>거부</b>	→ <b>정체성 결여</b>	→ <b>부적응</b>	<b>0.08</b>	<b>0.04</b>	<b>[0.01, 0.16]</b>
	강요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6	0.04	[-0.04, 0.17]
	<b>비일관성</b>	→ <b>정체성 결여</b>	→ <b>부적응</b>	<b>0.14</b>	<b>0.04</b>	<b>[0.05, 0.25]</b>

주. 유의한 결과는 볼드체로 표시하였음.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부적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웰빙과 부적 상관관계에, 부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부모양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간 상관관계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 부적 상관관계에,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정체성은 웰빙과는 정적, 부적응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웰빙과는 부적, 부적응과는 정적 관계에 있었다.

#### 정체성 발달 요인과 정신 건강 간 정체성 변인의 간접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적 웰빙 및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분석을 위해 JASP 프로그램으로 5,000번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으로 여섯 가지 부모양육태도를 모두 설정하였고, 결과변인으로 정신적 웰빙 및 부적응을 하나씩, 매개변인으로 정체성 발달의 세 하위요인을 하나씩 넣어 매개분석을 총 6회 실시하였다(표 2). 먼저,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이 확고한 정체성을 거쳐 웰빙(모델 1)과 부적응(모델 4)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했다.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인정

받고 삶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 배운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형성하였고 정신적 웰빙은 높고 부적응은 낮았다. 따스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경로는 모든 매개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는 거부와 비밀관성이 정체성 결여를 거쳐 웰빙(모델 3) 및 부적응(모델 6)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 거부와 비밀관성이 교란된 정체성을 거쳐 부적응(모델 5)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했으나 웰빙(모델 2)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강요로부터 시작하는 경로는 모든 매개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세 변인 모두 각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자세히 확인하였다. 먼저 단순 상관 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정신적 웰빙과 정적,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밀관성)는 정신적 웰빙과 부적, 부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희경, 김혜란, 2017; 안지영 등, 2021; 유연주, 전주성, 2021; 조양선, 서경현, 2013; 한동현, 2021; 한아름 등, 2018; Reed et al., 2016).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발달 간 관계의 경

우, 긍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는 정적,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인 관계를 가졌다. 반대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는 부적,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최입숙, 윤석환, 2016; 장희순, 2020; Zong et al., 2019)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중운, 이지혜, 2016; 이의빈, 김진원, 2021, 2023, Luyckx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확고한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고(박선웅, 박예린, 2019; 윤가영 등, 2022; Hardy et al., 2013; Park & Moon, 2022),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 심리적 부적응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박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 Luyckx et al., 2011).

본 연구의 핵심 주제였던 부모양육태도와 정신건강 간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는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이,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는 거부와 비일관성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지지 및 구조제공과 정신적 웰빙 및 부적응 사이를 확고한 정체성이 매개하였다. 정체성 결여는 부모의 거부 및 비일관성과 자녀의 웰빙 및 부적응 사이를 매개하였고, 교란된 정체성은 거부 및 비일관성과 부적응 사이를 매개하였다. 종합하면,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인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높은 정신적 웰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반

면, 부정적 측면인 거부와 비일관성은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통해 낮은 웰빙과 높은 부적응으로 연결되었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가 주로 자녀의 부정적인 정체성 발달과 관련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김미령(201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불안, 우울 및 강박 간의 관계를 정체성 혼미가 매개함을 밝혔다. 또 윤가영 등(2022)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높은 정체성 결여를 통해 낮은 심리적 웰빙과 높은 우울로 이어졌는데, 학업성취압력이 낮다고 해서 자녀의 확고한 정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모두에서 개별 하위요인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이 확고한 정체성을 거쳐 높은 정신적 웰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긍정적인 정체성 발달과 관련이 높은 양육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매개분석 결과,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중에서는 따스함,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중에서는 강요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두 변인은 단순상관에서는 다른 변인과 같은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매개분석에서는 여섯 가지 양육태도가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양육태도와의 공통적인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후 남은 고유한 설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 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나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문현 등, 2022; 윤가영 등, 2022; Waterman, 1984). 따라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에 대해 탐색하고 결단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단순히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것은 정체성 형성과 비교적 관련이 적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요는 특정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있다는 점에서 거부나 비일관성에 비해 자녀의 정체성 부재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거부나 비일관성이 정체성 발달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양육태도라면, 강요는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받게 되는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Marcia(1966)의 정체성 지위이론에서 정체성 폐쇄(identity foreclosure)는 자발적 탐색은 없이 특정 대안에 전념한 상태를 의미한다. 폐쇄 상태의 자녀는 부모가 선택한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관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강요는, 물론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는 아니지만, 거부나 비일관성에 비해서는 정체성 부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 결과가 반복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Soenens et al., 2017). 청소년기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위계적 관계가 많은 반면, 청소년기 이

후에는 서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한다(Branje, 2018; Koepke & Denissen, 2012; Smetana et al., 2006). 청소년기 자녀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갈등이 발생할 확률 역시 높아진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한 독립적인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율성지지는 확고한 정체성을 거쳐 높은 웰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Skinner et al., 2005), 정체성 발달(Kaufman et al., 2015), 정신건강(김진영 등, 2020)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각 세부 하위요인별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텅 빈 듯한 정체성 결여 수준이 낮다는 것이 곧 제대로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도 아니다. 또 거부나 비일관성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율성지지가나 구조제공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긍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도 자율성지지가나 구조제공에 비해 따스함은 확고한 정체성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하위요인별로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양육태도는 실제 부모가 보인 양육태도가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세대나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지각된 양육태도를 측정된 경우가 많고, 나아가 실제 부모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감정, 행동, 정신병리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Fletcher et al., 2014; Madeleine et al., 2010; Schaefer, 1965). 따라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했다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를 관찰하거나 부모로부터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회성 횡단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에 이르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청소년기 이전과 이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뀌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참여자로 모집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를 거쳐야 비로

소 청소년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으로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선택의 다양한 압박과 부담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수시나 정시 등 선택한 입시 방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입시가 끝난 겨울방학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겨울방학 시기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입시에 성공한 학생과 실패한 학생 간에 자기인식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다른 청소년 시기를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가 반복검증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덕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39-764.
- 김미령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 우울, 강박과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의 매개효과 검토: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337-362.
-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성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3(3), 199-223.
- 김진영, 문기범, 고영건 (2020).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4), 823-834.

- 김중운, 이지혜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예비초등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및 낙관성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673-698.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희경, 김해란 (2017).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 107.  
<https://doi-org-ssl.oca.korea.ac.kr/10.21509/KJYS.2017.01.24.1.107>
- 문현, 이다예, 김소을, 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증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https://doi.org/10.21193/kjspp.2022.36.1.001>
- 박가화, 이지민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 박선영, 홍세희 (2013). 자녀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자율지향적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21.
-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2.001>
- 박선웅, 김혜민, 이준배, 문현 (2023).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37-258.  
<https://doi.org/10.21193/kjspp.2023.37.2.006>
- 박희숙, 박재연 (2020). 청소년의 삶의 목표 관련 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7(1), 191-223.
- 송종환, 이선지, 부혜인, 이재호, 이홍석, 이홍표, 최윤경 (2023). 정신건강 2요인 모형에 따른 자살사고와 정서적 웰빙: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활용. *사회과학연구*, 62(2), 23-48, <https://10.22418/JSS.2023.4.62.2.23>
-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또래관계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2), 73-94.
- 이승연, 한미리 (2014). 정신건강 2 요인 모델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참여와 학업성취. *청소년학연구*, 21(10), 195-218.
- 이승연, 안소현 (2018). 정신건강 2요인 모델에 따른 완전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유형 간 차이와 개입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5(2), 197-219.  
<https://10.16983/kjsp.2018.15.2.197>
- 이의빈, 김진원 (2021).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8), 83-116.
- 이의빈, 김진원 (2023). 부모 과잉간섭적 양육태도와 대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 자아정체감, 삶의 목표 지향성,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73, 63-96.  
<https://10.17854/ffyc.2023.01.73.63>
-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 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임효진, 이소라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에 따른 차이. *중등교육연구*, 70(2), 133-164.
- 유연주, 전주성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2(2), 425-446.
- 윤가영, 이준배, 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https://doi.org/10.20406/kjcs.2022.11.28.4.529>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장희순 (2020).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307-332.  
<http://dx.doi.org/10.16983/kjsp.2020.17.3.307>
- 진다정, 이승연 (2019). 유아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교육과학연구*, 50(3), 153-177.  
<http://dx.doi.org/10.15854/jes.2019.9.50.3.153>
- 조양선, 서경현 (2013).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7), 99-122.
- 조하정, 이다예, 박선웅 (2021).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명확성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3), 27-45.  
<https://doi.org/10.21193/kjspp.2021.35.3.002>
- 채미경, 김현숙 (2018).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53-71.
- 최임숙, 윤석환 (2016). 전문대학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심리적 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167-194.  
<https://doi.org/10.21509/KJYS.2016.08.23.8.167>
- 한동현 (2021).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주도적 행동과 유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89-212.
-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103-115.
- Armour, J. A., Joussemet, M., Mageau, G. A., & Varin, R. (2022). Perceived parent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during adolescenc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4, 1-12.  
<https://doi.org/10.1007/s10578-021-01295-3>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103.  
<https://doi.org/10.1037/h0030372>
- Bogaerts, A., Claes, L., Buelens, T., Gandhi, A., Kiekens, G., Bastiaens, T., & Luyckx, K. (2021).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in adolescen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5), 377-387.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623>

- Bogaerts, A., Luyckx, K., Bastiaens, T., Sleuwaegen, E., Berens, A., & Claes, L. (2023a).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in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A psychometric evaluation and associations with identity processes, core domains of self-functioning, an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ssessment, 30*(7), 2184-2197. <https://doi.org/10.1177/10731911221140313>
- Bogaerts, A., Claes, L., Raymackers, K., Buelens, T., Bastiaens, T., & Luyckx, K. (2023b). Trajectories of adaptive and disturbed identity dimension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resilience, symptoms of depress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Frontiers in Psychiatry, 14*, 1125812. <https://doi.org/10.3389/fpsy.2023.1125812>
- Branje, S. J. T. (2018). Developmen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Conflict interactions as a mechanism of chang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3), 171-176. <https://doi.org/10.1111/cdep.12278>
- Costa, S., Sireno, S., Larcán, R., & Cuzzocrea, F. (2019). The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need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0*, 128-137. <https://doi.org/10.1111/sjop.12507>
- Crandell, J. L., Sandelowski, M., Leeman, J., Havill, N. L., & Knafl, K. (2018). Parenting behaviors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with a chronic physical condition. *Families, Systems, & Health, 36*(1), 45-61. <https://doi.org/10.1037/fsh0000305>
- De Lise, F., Luyckx, K., & Crocetti, E. (2024). Identity matters for well-being: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identity processes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4), 910-926.
- Dong, Z., Zhou, S., Case, A. S., & Zhou, W.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social anxiety: A meta-analysis of Mainland Chinese stud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5*(1), 247-261. <https://doi.org/10.1007/s10578-022-01399-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https://doi.org/10.1002/bs.3830140209>
- Fletcher, K., Parler, G., Bayes, A., Paterson, A., & McClure, G. (2014).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bipolar II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with perceived parental sty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7*, 52-59. <https://doi.org/10.1016/j.jad.2014.01.001>
- Hardy, S. A., Francis, S. W., Zamboanga, B. L., Kim, S. Y., Anderson, S. G., & Forthun, L. F. (2013).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moral identity in college student mental health, health risk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4), 364-382. <https://doi.org/10.1002/jclp.21913>
- Hatano, K., Hihara, S., Nakama, R., Tsuzuki, M., Mizokami, S., & Sugimura, K. (2022). Trajectories in sense of identity and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during

-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58(5), 977-989.  
<https://doi.org/10.1037/dev0001326>
- Hoyle, R. H., and Sherill, M. R. (2006). Future orientation in the self system: Possible selves, self regul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74(6), 1673-1696.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24.x>
- Inguglia, S., Inguglia, C., Liga, F., & Coco, A. L. (2017).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nalizing difficulties in emerging adulthood: The role of ident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4(8), 1227-1240.  
<https://doi-org-ssl.oca.korea.ac.kr/10.1177/0265407516670760>
- JASP Team (2023). *JASP* (Version 0.17.2) [Computer software].
- Karaś, D., Ciecuch, J., Negru, O., & Crocetti, E. (2015). Relationships between identity and well-being in Italian, Polish, and Romanian emerging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 727-743.  
<https://doi.org/10.1007/s11205-014-0668-9>
- Kaufman, E. A., Cundiff, J. M., & Crowell, S. E. (2015). Th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A self-report assessment of clinical identity disturbanc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1), 122-133.  
<https://doi.org/10.1007/s10862-014-9441-2>
- Keyes, C. L. M. (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539-548.  
<https://doi.org/10.1037/0022-006X.73.3.539>
- Keyes, C. L. M. (2007). Promoting and protecting mental health as flourishing: A complementary strategy for improving national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62(2), 95-108.  
<https://doi.org/10.1037/0003-066X.62.2.95>
- Koepke, S., & Denissen, J. J. (2012). Dynamics of identity development and separation - individuation in parent - 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 A conceptual integration. *Developmental Review*, 32(1), 67-88.  
<https://doi.org/10.1016/j.dr.2012.01.001>
- Liu, Y., & Merritt, D. H. (2018).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depression among Chinese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8, 316-332.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8.03.019>
- 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 Berzonsky, M. D.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https://doi-org-ssl.oca.korea.ac.kr/10.1037/0893-3200.21.3.546>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 42(1), 58-82.  
<https://doi.org/10.1016/j.jrp.2007.04.004>
-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Beyers, W., & Missotten, L. (2011). Processes of personal identity formation and evaluation.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77-98). New York: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419-7988-9\\_4](https://doi.org/10.1007/978-1-4419-7988-9_4)
- Madeleine, J., Eleonora, G., & Elizabeth, H. (2010). The roles of temperamental dispositions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urs in the use of tw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lat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47-59.  
<https://doi.org/10.1016/j.appdev.2009.07.008>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https://doi.org/10.1037/h0023281>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 5447-5461.  
<https://doi.org/10.1007/s12144-021-01838-w>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6), 4066-4078.  
<https://doi.org/10.1007/s12144-020-00926-7>
- Pinquart, M., & Gerke, D. C. (2019).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 2017-2035.  
<https://doi.org/10.1007/s10826-019-01417-5>
- Power, T. G. (2013).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a brief histor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Childhood Obesity, 9*(1), 14-21.  
<https://doi.org/10.1089/chi.2013.0034>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emen, L., Claes, L., Palmeroni, N., Buelens, T., Vankerckhoven, L., & Luyckx, K. (2022). Identity formation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ce: Examin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co-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83*,  
<https://doi.org/10.1016/j.appdev.2022.101473>
- Reed, K., Duncan, J. M., Lucier-Greer, M., Fixelle, C., & Ferraro, A. J. (2016). Helicopter parenting and emerging adult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0), 3136 - 3149.  
<https://doi.org/10.1007/s10826-016-0466-x>
- Samaey, C., Lecei, A., Achterhof, R., Hagemann, N., Hermans, K. S., Hiekkaranta, A. P., Kirtley, O. J., Reininghaus, U., Boets, B., Myin-Germeyns, I., van Winkel, R. (2023). The role of identity in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anxiety, and psychosis symptoms in adolescents exposed to childhood adversity. *Journal of Adolescence, 95*(4), 686-699.  
<https://doi.org/10.1002/jad.12145>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https://doi.org/10.2307/1126465>  
Schachter, E. P., & Ventura, J. J. (2008). Identity agents: Parents as active and reflective participants in their children's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3), 449-476.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8.00567.x>
- Schwartz, S. J., Beyers, W., Luyckx, K., Soenens, B., Zamboanga, B. L., Forthun, L. F., Hardy, S. A., Vazsonyi, A. T., Ham, L. S., Kim, S. Y., Whitbourne, S. K., Waterman, A. S. (2011). Examining the light and dark sides of emerging adults' identity: A study of identity status differences in positive and negative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839-859.  
<https://doi.org/10.1007/s10964-010-9606-6>
- Schwartz, S. J., Hardy, S. A., Zamboanga, B. L., Meca, A., Waterman, A. S., Picariello, S., Luyckx, K., Crocetti, E., Kim, S. Y., Brittan, A. S., Roberts, S. E., Whitbourne, S. K., Ritchie, R. A., Brown, E. J., Forthun, L. F. (2015). Identity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mental health and risky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9-52.  
<https://doi.org/10.1016/j.appdev.2014.10.001>
- Smetana, J. G., Campione-Barr, N., & Metzger, A. (2006). Adolescent development in interpersonal and societ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1), 255-28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7.102904.190124>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oenens, B., Vansteenkiste, M., & Van Petegem, S. (Eds.). (2017). *Autonomy in adolescent development: Towards conceptual clarity*.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1315636511>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29-341.  
<https://doi.org/10.1177/0272431684044004>
- Zong, X., Cheah, C. S. L., Yu, J., Lim, H. J., Vu, K. T. T., & Opara, N. (2019). Identity synthesis as a pathway linking parenting and emerging adults' in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8(4), 1029-1041.  
<https://doi.org/10.1007/s10826-019-01330-x>

원고접수일 : 2024. 05.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8. 16.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9. 06.

##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Identity Development

Joonbae Lee<sup>1),2)</sup> Yujin Huh<sup>1)</sup> Byeong Cheol Cho<sup>1)</sup> Sun W. Park<sup>1)</sup>

<sup>1)</sup>Korea University <sup>2)</sup>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identity development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We exa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arenting attitudes,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y which parenting attitudes affect mental health through identity development. To do so, we recruited 218 high school seniors to complete an online survey about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mental health, and identity development. Zero-order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characterized by warmth, support for autonomy, and structur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ladjustmen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characterized by rejection, coercion, and chaos, had the opposite associations. Furthermor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olidated identit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disturbed identity and lack of identity,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the opposite associations.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mental well-being and lower maladjustment via consolidated identity, while rejection and chaos were associated with lower well-being and higher maladjustment via lack of identity. In addition, rejection and chao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maladjustment via disturbed identity. By identifying how parenting attitudes affect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Give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such as an increased need for autonomy, and the developmental task of identity formation, this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hat support autonomy and provide structure may lead adolescents to develop their own identity and improve their mental health.

*Keywords* : parenting attitudes, identity develop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ce, mediation effect